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기 · 신명기

고린도전서 · 고린도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기 · 신명기

고린도전서 · 고린도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일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⑨ 여름성경학교·수련회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은총의 주님은 흑암의 권세에 매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골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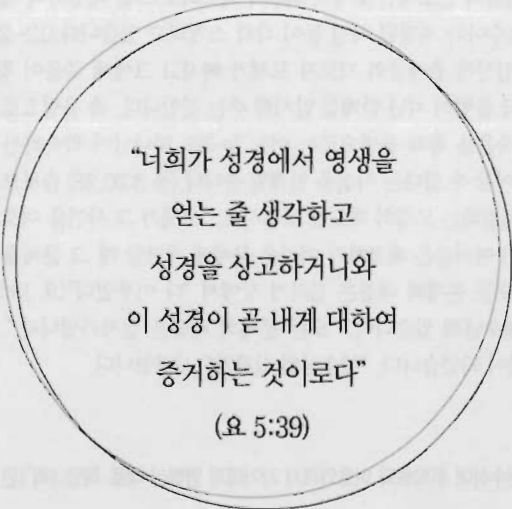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은총의 소식을 고대하는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의 애타는 절규입니다.
은총을 받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왕하 7:9)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증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킨 십자가와 부활!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합시다.
또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2007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이스라엘은 모압평지에서 실시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서서히 광야 40년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소망하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로 남성 본위의 사회 질서 내에서 딸의 기업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특수한 상황이 언급됩니다.(1~11절) 아들이 없는 슬로브핫의 집안의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그들에게 할당된 가나안 영토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훌륭한 판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어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의 최후가 예고되고 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된 사실 등이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12~23절) 한편 가나안 입성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빠지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결국 율법이 지닌 한계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롬 3:20,28) 슬로브핫 딸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5절) 여러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민 27:23)

기도 제목 ① 각 교회학교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②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주일 예배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 됩니다. 이제 28,2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염두에 두어야 할 각종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먼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할 제사(상번제)에 관한 규례(1~8절)와 안식일에 드릴 제사 규례(9,10절)입니다. 이어서 매월 초에 드릴 월삭에 관한 규례(11~15절)와 유월절 제사(16~25절) 및 칠칠절 제사(26~31절)에 관한 규례들이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민수기 15장과 출애굽기 23, 29, 31장, 레위기 23장 등에 소개된 제사 규례를 총괄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 규례를 세밀히 밝히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물질과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납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 제사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실 산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러지기 위해서는 자기부인을 해야 하며, 자기부인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찌니라”(민 28:2)

기도 제목 ① 충현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매년 7월 초하룻날에 드려질 나팔절 제사에 관한 규례(1~6절), 매년 7월 10일에 드려질 속죄일 제사에 관한 규례(7~11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간 드려질 초막절 제사에 관한 규례(12~38절) 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속죄일 다음에 이어지는 초막절은 속죄에 뒤따르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즉 속죄일에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각종 제물을 드리는 것은 광야의 장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다른 절기에서와 같이 초막절에도 속죄제가 드려졌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없이는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산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십니까? 혹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한 순간이라도 놓쳐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민 29:1)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1,2절), 아버 집에 있는 어린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3~5절),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6~8절),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에 관한 규례(9절), 그리고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남편과 아버지의 관계(10~16절)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의무가 아니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하지 않아도 허물이나 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단 서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신령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허물에 대하여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서 11:1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전 5:4,5)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서원은 실로 아름다운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기분에 치우쳐서 서원을 남발하거나 억지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약속을 경이롭게 성취하셨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민 30:2)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헌신예배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미디안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지만(1~12절) 이방 우상에 오염된 미디안 여자를 살려두는 큰 실수를 범한 사실이 소개되며(13~24절), 계속해서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모습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25~54절) 미디안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승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족속으로부터 받은 치명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우상숭배자들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부정과 부패를 일절 남기지 말고 모두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조치이며 백성들을 성결케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둠으로써 크게 책망 받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 앞설 때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말씀은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매 지파에서 일천 인씩 이스라엘 천만 인 중에서 일만 이천 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민 31:5)

기도 제목 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순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합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앞두고 르우벤자손과 갓자손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하는 이기적인 요구를 하여(1~5절), 모세가 그들을 엄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6~15절) 모세의 책망에 두 지파는 즉각 순응하는 동시에 자신들도 가나안 정복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요단 동편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16~32절) 모세는 그들의 재청원을 받아들여 요단 동편 땅을 공평히 그들에게 분배합니다.(33~42절) 르우벤자손과 갓자손은 자신들의 안일을 위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길르앗 땅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21,29절)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전쟁을 피하고 구경꾼으로 종교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안일함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7월에는 많은 충현의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신 예수님, “네 양을 먹이라”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요 21:15~17)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 들고 나가렵니다. 충현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민 32:27)

기도 제목 ①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금요찬양집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광야 40년 방향을 끝내는 부분입니다. 출애굽한 사실(1~4절)과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는 노정(5~15절), 38년간의 광야 여정(16~36절)과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여로(37~49절)를 소개하고,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유의할 사항과 요단 서편 땅의 분배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50~56절) 실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방향 경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 약속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40년이나 광야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첫째는 불순종이며 둘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세월에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간직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영원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피물은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져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민 33:2)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한 사실(1~15절)과 가나안 땅을 분할 할 때 수고할 각 지파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6~29절) 그런데 제시된 가나안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땅만을 제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과 삶 속에서 구원 사역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매일 반복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찢려옴으로 두렵습니까? 우리는 매일 밥과 된장국을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역시 우리의 영의 양식인 십자가 말씀은 매일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매일 들어도 십자가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하며 입맛이 다셔집니다. 십자가 말씀에서 발전은 십자가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민 34:16,17)

기도 제목 ①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소서. ②충현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레위지파는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48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부지(不知)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42개 성읍은 일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민 18:20)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읍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아론 자손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며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섯 개 성읍을 지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피하게 하라”(1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는 그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죄로 죽어야 하는 죄인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똑같이 누렸습니다.(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豫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영원하신 안전한 도피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은총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민 35:6)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거하게 하소서. ② 성전 외벽공사, 납골당, 수양관, 양로원 건립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우리는 각 지파에 분배된 기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즉,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지파에 속하는 슬로브핫에게는 딸만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땅도 다른 지파로 이전(移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지파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가며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찌니”(6절) 이 말씀대로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과 결혼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신앙 공동체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세 오경은 우리 신앙의 규범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한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고 오직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순종함으로’ 해결하십시오.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민 36: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소서, ② 2007년 선교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제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던 사건을 회고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출애굽 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는 실패와 후회요, 통곡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모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20세 이상의 구세대는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지만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신세대(39절)는 모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합 3:2)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불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찌니라”(신 1:8)

기도 제목 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모두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나안 진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1세대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제 2세대는 순종했습니다.(민 13:1, 민 20:14)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상반된 태도 때문에 두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1세대는 가나안을 향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세일산 주변을 맴돌며(1절) 온갖 시련과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13~15절) 반면에 순종한 2세대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모압 평지까지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멸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민 21:24)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놀라운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자기부인이며 자기포기입니다. 포기하기 어려우십니까?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해야 합니다. 내리라 하시면 내려야 합니다. 버리라 하시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어디 있습니까? 그 손으로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만지십시오. 주님이 신음하시며 호소하시던 그 아픔이 내 죄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전될 수 없어서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신 2:1)

기도 제목 ①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운 신 열꾼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은혜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가나안 입성이 허가되지 않았던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민 20:12)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25절)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26절)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나안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가장 헌신적이었던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바’ 물 사건에서 혈기를 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가나안 입성 금지는 곧 율법의 열심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갈 3:23~29)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같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엡 2:8)

가나안 입성을 소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26절)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해도 모세에게 넉넉히 만족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한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해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위로가 있게 하시며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6)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모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듣고 지키는 데 있음을 강조한 다음에(1~40절), 요단 동편에 설치될 도피성의 위치를 언급합니다.(41~43절) 도피성이란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의 보복자로부터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 받는 피난처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쫓기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숨어도 죄인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도피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추격할 수도 해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송사하지만, 우리의 도피성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를 내보이며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어,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 칭함 받고, 그 이후로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곤한 영혼이 편히 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즉시 영혼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곳으로 피하는 자는 모두 참 생명과 풍성한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참 도피성이십니다.

“이는 과거에 원함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 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신 4:2)

기도 제목 ① 매순간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호렙산 위에 임하셔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22,23절) 이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5절)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어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극악한 죄악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27절)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일시적인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중보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인간을 위해 완전한 중보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실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이신 그분이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신 5:7)

기도 제목 ① 어떤 죄악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께서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독신 생활이 더 좋다고 말했을 뿐입니다.(1,26,32절) 바울은 말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2절) 즉, 끝까지 절제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9절) 그러므로 혼인을 할 것인지 독신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선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7절) 이 두 가지가 없는데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나 자유롭고 편리한 삶을 위하여 독신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한편, 29절로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29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30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골 3:2)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전 7:2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가정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②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는 중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당시 고린도지역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육류는 이방 신전(神殿)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런 육류를 구입해서 먹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8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뿐이며 식물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물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습니다.(딤후 4:3~5)

그러나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합법적인 자유도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연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9절) 즉, 그들은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지만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서 연약한 자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상 제물을 먹어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중시있게 다룹니다. 연약한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2절)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전 8:13)

기도 제목 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연약한 형제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②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데서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이런 포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유자였고 사도였으며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12,19절)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부인의 삶'이란 복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자유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권리와 특권까지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 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말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27절)는 고백과 같이 자기부인으로 날마다 죽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으로라"(고전 9:18)

기도 제목 ① 타락과 방종이 범람하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간음, 하나님을 시험한 일과 원망한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했으며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정도로 악하고 무지하며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헛된 자신감을 버리고 겸손히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12절)

특별히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14절)고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원리적으로 금합니다.(20절) 다만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는 일과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않고 먹는 일은 괜찮다고 말합니다.(25~27절) 그러면서 바울은 매우 중대한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31절) 즉, 어떠한 경우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매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순결한 소원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4)

기도 제목 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살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여성이 남성과 함께 예배는 드리되, 머리에 예배포를 쓰도록 명하고 있습니다.(2~16절) 이것은 남녀 사이의 우열(優劣)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역시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순복(順服)하는 것이며, 여인의 정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이 주는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 장의 후반부는 성찬식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17~34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의 경건함과 신령함을 상실하였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바른 모습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돌아보고, 죄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살과 피가 주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영적으로 풍성하여 믿음의 삶이 힘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십자가가 주는 역동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를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은사의 잘못된 사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분파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받은 은사에는 다양성과 통일성(1~11절)이 있으며, 하나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들어 교회의 유기적 일치를 강조(12~27절)합니다. 아울러 성도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오직 교회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권면 (28~31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되 반드시 택한 백성을 통하여 그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은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은사란 각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각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며, 각자의 고유한 자질과 능력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 귀한 직분과 천한 직분, 무시해도 좋은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약한 지체를 세워주며 서로를 섬기며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전 12:25)

기도 제목 ①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며, 오직 주를 위해 사용케 하소서. ② 25개 교구를 통해서 총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증거합니다. 사랑의 필수성(1~3절), 사랑의 본질의 다양한 모습(4~7절), 사랑의 영원성과 실천이 필요함(8~13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순종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뭇 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는 도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4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심”(7절)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님 성품의 본질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품고 나누어야 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은사입니다. 본문을 통해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예수님과 나 자신이, 성도와 성도가 나누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나눔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은 많은 인내와 수고와 오래 참음과 믿음과 견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7)

기도 제목 ①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은사는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전 반부(1~25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 안에서 예언과 방언 두 은사를 실례로 설명하고, 후반부(26~40절)는 이런 은사를 특히 예배에 선하고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11장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교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여성의 자제를 권면하고, 은사에 대한 교훈과 예배의 질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온 교회에 최고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와 온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심리적인 가치나 개인적인 영적 활동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지위의 상승을 위한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는 다른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병 고침이나 다른 모든 은사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소중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높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은사 사용에도 절제와 내려놓음과 자기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충현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뭇성회기를 구하라”(고전 14:12)

기도 제목 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케 하소서. ② 피택 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초대교회는 당시 현존하던 유대교와 헬라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울은 부활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신앙의 토대가 굳건치 못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1~34절),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35~49절), 영생을 위한 성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보장하는 최후 승리의 확실성을 각인시키면서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을 권면(50~58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해 직접 목격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사건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막연히 믿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실제이며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예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기도 제목 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장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큰 기근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던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구제 방법에 대해 고린도교인들이 질문한 것을 바울은 답변하고 있습니다.(1~4절)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 계획(5~12절)과, 사랑과 용기라는 신앙생활의 두 기본 자세에 대한 권면(13,14절), 고린도교회의 몇몇 일꾼에 대한 칭찬과 그런 선한 일꾼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한 권면(15~18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19~24절)로 이 장은 마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은 예루살렘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서 많은 이방교회들이 이 헌금에 동참하였습니다. 한편 고린도교회에 대한 구제 연보의 요구는 단순한 구제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 교회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고취시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우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인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려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13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4절)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사랑에 붙들린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16절) 권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찌어다”(24절) 하는 고백으로 고린도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감하는 사도바울과 같이 서로 복종하며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전 16:14)

기도 제목 ①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② 때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전도 여행의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고린도교회를 방문합니다. 당시에는 고린도교회에 장기 체류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형편이 못 되어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계속된 방문과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회개하였으나 일부가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역의 진실성까지 불신하며 끝끝내 자신들의 과오를 돌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과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고린도후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버리지 않고 감사 찬양을 올리며 자신보다 먼저 성도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의 고난 중에서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9,10절)과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성도의 구원을 바라는 사도로서의 열정(6,7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뜻을 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하늘에 뜻을 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에 지쳐서 삶을 포기하며 어둠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어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케 하소서. ②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고통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내의 근심하게 한 자들에 대하여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8절)고 하며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7절)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로 사탄의 꾀계에 속지 않도록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며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김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며, 이 냄새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14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착각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의 결과로 얻어지는 냄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이 향기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16절)고 말씀합니다. 이 향기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다시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16절)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거둬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 전도자인 우리 몸에 거하시며, 생명으로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총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고린도교회 내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을 해명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실 자체가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사도권의 증거로 삼습니다. 성도는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뿐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사도직의 증거와 그 영광(7~11절)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인준받기 위해 인준을 따로 받거나 특정한 자들의 추천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변화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기록한 편지, 곧 사도권에 대한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2,3절)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완고함의 수건이 걷히고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14~16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비밀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광야의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새언약”(6절)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오늘도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기도 제목 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 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2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했다는 말은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편에 서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 등 듣기 좋은 것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십자가 복음을 가감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교요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낙심치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8~11절)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질그릇 같은 자신 속에 보배를 간직하였으며 복음의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7절) 예수님을 전할 때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육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됨(16절)을 믿으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것(14절)을 믿습니다. 오늘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육체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의 비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기도 제목 ①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고후 11:23) 그렇다면,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1절)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죽음을 사모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과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곧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 이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강권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로부터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는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② 당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장로님들이 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부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섞여 동화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요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요함으로 배불리 먹으며 안락함으로 영적인 안타까움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철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순교자의 믿음을 지킨다고 전통과 의를 내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외식적인 자기부인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며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역설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전도자는 죽음이 곧 삶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 합니다.(10절)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신자가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동화(同化)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부인하며,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채워질 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후 6:1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7월 구역교재 초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구원의 소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도록 당신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순간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629	요 3:1~8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자
0706	시 115:9	여호와를 의지하라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자
0713	행 1:3	확실한 많은 증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0720	행 11:19~30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0727	왕하 7:3~11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 초 점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자

| 찬 송 |

찬송가 203장 나 행한 것으로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본 문 | 요한복음 3:1~8

①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②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③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④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⑤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틀림없이 동료들의 압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 니고데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요 3:1~8, 7:50,51, 19:39 참조)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류애, 사랑, 친절, 동정, 진실 등의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있지만 영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믿음은 없습니다.(딤후 3:5)

※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 마음을 열고 나누어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새 생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요 3:1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병 고침의 기적과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전까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까지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 3:2 /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3:3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_____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_____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니고데모 자신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닌 문제를 이해하고 계셨고 무엇이 그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요 3:4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커녕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 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 곧 육체적인 탄생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 3:5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과 ☐
☐으로 나지 아니하면 ☐☐☐☐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이 아닌 영적인 탄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3:6,7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 3:14,15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_____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_____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민 21:6)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뚫으로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민 21:9) 모세가 뱀을 든 것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뚫뱀이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 3:16 / 하나님이 □□을 이처럼 사랑하사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치 않고 □□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1:12 / □□하는 자 곧 그 □□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 되
는 □□를 주셨으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뿔뿔을 바라보는 것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딤후 3:5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_____로 좇아
_____과 _____으로 하셨나니

※ 스스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종교적인 권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을 선하다고 속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혈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총현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2. 말씀에 간절한 사모함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3.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2과 여호와를 의지하라

| 초 점 |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자

| 찬 송 |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본 문 | 시편 115: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출 16:35 / 이스라엘 자손이 _____ 만나를 먹
되 곧 _____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오늘날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 115:9

※ 지난 주간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눅 12:7 / 너희에게는 오히려 □□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마 13:35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비록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의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계 13:8

눅 11:50

마 25:34 / _____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_____

※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신세한탄적인 대화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앞에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전 10:13 / 사람이 감당할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 40:31 / 오직 _____ 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_____ 걸어가도 _____

주님은 언제 우리가 지치고, 예민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유혹에 빠지고, 낙심되고, 거의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놓인 사탄의 반대와 압박에 대해 아십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은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방패가 그 어떤 것도 해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 41:10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칼 등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롬 8:38,39 / 내가 확신하노니 이나 이나 들이나 들이나 일이나 일이나 이나 이나 이나 다른 아무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 27:14 / 너는 를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를 바랄찌어다

십자가로 路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내하셨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빌 4:13 / _____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누어 보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총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소서.
3.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모든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과 확실한 많은 증거

| 초 점 |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 찬 송 |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찬송가 15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 본 문 | 사도행전 1:3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
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
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 정말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고 성경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합니다.

벤전 1:3 /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은 신 공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_____ 말미암아 우리를 _____ 있게 하시며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도 부활의 증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제시해 줍니다.

고전 15:14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빈 무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 27:66 /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하고 을 굳게 하니라

눅 24:1~3 /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에 가서 이 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파수꾼들을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소문을 내주면 총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대제사장들은 약속했습니다.

마 28:12,13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무덤은 비어있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 빈 무덤, 부활의 목격자! 그럼에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사랑하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내 사랑과 내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려진 적이 없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부활의 목격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 부활의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 28:9 / _____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덤을 찾아 왔던 여인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 20:27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오백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고전 15:6~8 / 그 후에 오백여 □□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에게 보이
셨으며 그 후에 모든 □□에게와 맨 나중에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삶의 변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고후 5:17 / 그런즉 누구든지 _____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_____

※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
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증언들은 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구원받은 그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
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롬 10:9,10

행 16:31

십자가로 路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행 4:18~20 /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의 □□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살아 나셨습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살아 나셨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믿으면 됩니다.

| 간절한 기도 |

1.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2.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해 주소서.

4과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 초 점 |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 찬 송 |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255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 본 문 | 사도행전 11:19~30

¹⁹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다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²⁰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다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²¹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²²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인들은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참 신자들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것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행 11:26 / ...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_____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교회는 선교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행 1:8

※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나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안디옥교회의 시작

안디옥교회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 심해진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행 11:19 /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
□와 □□□와 □□□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대단했고 마침내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교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행 11:22,23 / 예루살렘교회가 _____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_____ 모든 사
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안디옥교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행 11:25,26

성령충만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행 13:1 /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와 니게르라 하는 과 구레네 사람 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과 및 이라

참으로 안디옥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돌아보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셨을 때 안디옥교회는 순종했습니다.

행 13:2 /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_____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_____ 하시니

행 13:3 /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_____

선교하는 안디옥교회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행 13:4,5 /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에 가서 □□□□에 이르러 □□□□의 □□□□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오늘날의 교회들은 안디옥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현 상태를 유지하느라 급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 파송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역에 쓸 물질이 없다든지 보낼 만한 선교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막 16:15

물질이 넉넉한 교회들은 그것을 선교보다는 교육 정보, 기술, 문화 센터 등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경비에 연연하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에 더욱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 28: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_____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_____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일은 그 영혼들을 구해내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눅 19:10 / 인자의 온 것은 _____ 함이니라

※ 지금까지 선교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으신 구역원들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주변 전도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핑계와 이유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총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3.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5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 초 점 |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본 문 | 열왕기하 7:3~11

㉔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㉕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찌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찌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㉖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㉗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마음으로 路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의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
니다.

왕하 7:1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
로 이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처음
으로 목격했던 문둥병자들은 이것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
습니다.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 있
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문둥병자들도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하 7:3 / 우리가 하여 여기 앉아서 를 기다리랴

겔 18:31 /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과 을 새롭게 할찌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느냐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낙담하고 무기력해져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움직이든지 머물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없다면 죽음에 직면합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3:18 / 저를 믿는 자는 _____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_____

※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무기력하여 꼼짝도 하기 싫었던 때에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끄신 섭리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죽기 전까지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적진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하 7:4 /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찌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_____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니와 _____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번뿐인 기회였고 그들은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 14:6

롬 6:23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평화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적진에 올라간 문둥병자들은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왕하 7:7 / 황혼에 일어나서 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을 위하여 하였음이라

왕하 7:9 /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 하도다 오늘날은 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우리에게 미칠찌니 이제 떠나 에 가서 고하자

그들은 생명을 건졌고 식량, 금, 은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과 온 성을 구했습니다.

왕하 7:10 /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_____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_____

십자가로 路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모른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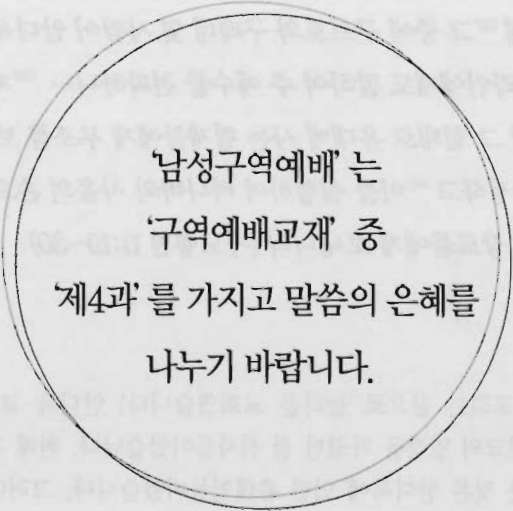
※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발견했다면 “왕궁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고한 문둥병자들”(9,10절)과 같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만 이 생명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2.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3.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¹⁹⁾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²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²¹⁾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³⁰⁾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19~30)

안디옥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참 신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복음을 들은 것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삼시간에 안디옥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가장 왕성한 기독교 도시로 성장했고 초대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신생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26절) 안디옥교회는 선교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안디옥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교회의 시작

안디옥교회는 스테반의 일로 한층 심해진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19절)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21절) 이방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대단했고 마침내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교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안디옥교회가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23,24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안디옥교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

고…”(26절)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충만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성령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행 13:1,2)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돌아보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안디옥교회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떠나 보내라고 하셨을 때 안디옥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행 13:2)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뒤 떠나보냈습니다.(행 13:3)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안디옥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그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행 13:4,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느라 급급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 파송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 교회는 안디옥교회와는 전혀 판판입니다. 그들은 선교 사역에 쓸 자금이 없거나 보낼 만한 선교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을뿐더러 설사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후원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금이 넉넉한 교회들은 그것을 선교보다는 교육 정보, 기술, 목회자 사택 등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충현교회는 경비에 연연하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에 더욱 힘을 모아 하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교회를 채우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타락하고 죽어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들을 구해내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7월호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집필진: 양재웅, 유제진

발행처: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